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부처님 法 실행하는 길”



매서운 바람이 완연한 겨울임을 알려주는 11월 28일, 서울 신촌 태고종 봉원사로 올라가는 길은 을씨년스러웠다. 단지 날씨가 때문만은 아니었다. 대선의 계절을 알려 주듯 사하촌 벽 여거지가 붙어있는 후보자들의 선심성 공약들도 마음 속 허전함을 한 뭉텨 거드는 것 같았다.

봉원사 주지실에서 10여분을 기다리니 인공 스님이 들어왔다. 내뿜 칠순을 맞는 노인이라고는 안 느껴질 정도로 동자승 같은 맑은 얼굴에 음성은 힘 있고 또렷했으며 눈빛도 형형하게 살아 있어 주위를 압도했다. “요즘 대선철이라 바깥은 시끄럽죠? 평소엔 나라살림을 알차게 잘 했으면 굳이 확성기로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국민들이 짝어 줄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다 그들의 욕심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않자마자 스님은 정치인들의 작금의 세태를 개탄하기 시작했다. “불교를 알면 그러지 않을텐데”라며, 스님의 말씀이 이어졌다. “불교적 수행은 자신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어요. 수행이라는 것은 진리를 얻고 자신을 바로 알고자 함이지요. 자신을 버리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어요. 말과 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철저히 자신을 의식하고 그 의식을 풀겠다는 굳은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스님은 출가 후 평생 동안 몸이 아무리 아파도 봉원사에서 새벽 4시부터 열리는 예불과 참선은 한 번도 거르는 일이 없었다.

“업 뒤고 번뇌와 집착 없애고 자신을 낮추는 일은 평생해도 모자람니다.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잠자고 밥 먹고 공부행정 보고 하다보면 그리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하루를 예부로 시작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하루 동안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출가자의 사명감을 잊지 않기 위해서이지요. 가정에서도 좋으니 우리 불자들이 아침마다 예불만큼이라도 해보세요. 수행이 뭐 거창한 것입니까? 생활 속에서 마음 뒤으면 그게 수행이지요.”

스님은 출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감이라고 했다. “출가의 사명은 견성하기 위해서인데, 그것을 잊고 산다면 속인과 다를 바 무엇이 있겠습니까. 수행자는 깨달음 외에 달리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번뇌와 속박에 물들게 되면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없게 되니,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진정한 무소유를 실천할 때만이 깨달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가나 속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마음은 다른데 빼앗긴 채 가부좌를 틀고 앉은들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본성이란 무엇입니까. 본성을 찾는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차한잔을 마신 스님은 말을 계속 이어갔다.

“한량없는 생각이 활나에 일어났다 사라진다. 중생의 모든 고통이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음이란 형체가 없어서 허공의 새가 날아간 자리처럼 공한 법입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이 아주 신비한 것이어서 넓으면 법계도 삼킬 수 있지만 좁으면 바늘끝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게 됩니다. 부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마음(心)입니다. 팔만대장경도 마음 심자 풀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 하나 깨치고 나면 모든 이치를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본래 본성이요,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본성을

찾는 길입니다.”

대선주자를 비롯한 정치인들을 향해서도 스님은 경책을 아끼지 않았다.

“<법망경>에 보면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다 돌려주고 악한 일은 모두 자기에게 돌려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좋은 자리는 남에게 다 돌려주라 하셨습니다. 제일 나쁜 자리에 앉으라 하셨으니 그것이 모두 복받을 일이라는 말입니다.

스님이 되어 처음 배우는 <초발심자경문>에 보면 ‘人我山崩處(인아산붕처) 無爲道自成(무위도자성) 凡有下心者(범유하심자) 萬福自歸依(만복자귀의)’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인아산(人我山)이 무너지는 곳에서 무위(無爲)의 도가 저절로 이루어지나니, 무릇 하심(下心)함이 있는 이에게 만복이 스스로 귀의한다’는 뜻이지요.

“내가 아니다” 하는 그 상이 무너지는 곳에 힘이 없는 도가 스스로 일어나고, 무릇 하심하는 자에게는 만 가지 복이 모두 날 위에서 찾아옵니다. 언제든 남을 배려해야지 나만 잘 살겠다고 해서 잘 살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하심해야 합니다. 범문 많이 듣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마디라도 실행하는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이야말로 국민을 위해 항상 하심하는 마음으로 나라일을 돌본다면 국민들에게 분명히 존경받을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마음을 넓게 가지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듯 국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어 불자들에게 주실 말씀을 청했다. “처세간여허공(處世間如虛空) 여연화불착수(如蓮華不着水) 심정정초어피(心淸靜超於彼) 계수에무상존(稽首禮無上尊)이라. 세간 생활 하되 허공같이 비워서 걸림 없게 하고, 연꽃이 더럽고 깨끗한 물에 젖지 않는 것 같이 하라.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장애나 구애받음 없이 자기 부처에게 의지하라는 뜻이지. 항상 마음의 근원을 밝히고

성품의 근원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해요. 요즘 사람들은 공부함을 누릴 줄만 알았지 욕망을 절제하는 법은 몰라요. 세상이 혼탁한 것도 그 욕심 때문이지. 행복은 거기 있지 않아요. 자식은 부모에 효도하고, 책임을 다해 가정을 돌보고, 부처님 계행을 바탕으로 삼아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을 바로 세우는 것이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요,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인공 스님은 이곳 봉원사에서 산지 50여년이 흘렀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하셨다. 다만 변한 것이 있다면 세월이 흘러 나이가 쌓인 것뿐이라고. 하지만 스님은 그것조차 있고 산다. 세월의 경계도, 아름답고 추함의 경계도 모든 것이 다 상(相)에 불과한데 무엇을 탐하고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봉원사에서 산처럼 살아 가시는 인공 스님에게서 또 다른 산을 보았다. 그 산은 말했다.

“이제 아무런 욕심 없어요. 우리 전통불교문화의 대표주자인 영산재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돼 세계인들에게 우리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밖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기자양반도 꼭 그렇게 되도록 마음속으로 빌어주세요. 우리 불자들 각자의 마음이 모여지면 분명 그 원력으로 꼭 이뤄질 것입니다.”

글=김주익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인사 스님은 1938년 서울에서 출생했으며, 1957년 벽해 스님을 은사로, 일파 스님을 계사로 득도했다. 1970년 태고종 총무국장에 이어 1975년 사회부장을 역임했다. 1999년 신촌 봉원사 주지를 거쳐, 2004년부터 현재까지 태고종 중앙총회의장을 맡고 있다. 인공 스님은 30여 년간 중앙총회의원으로 활약하며 총회 부의장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종단의 중무행정 발전에 힘써왔다.



선지식인을 찾아서

인공 스님 (태고종 중앙총회의장)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썩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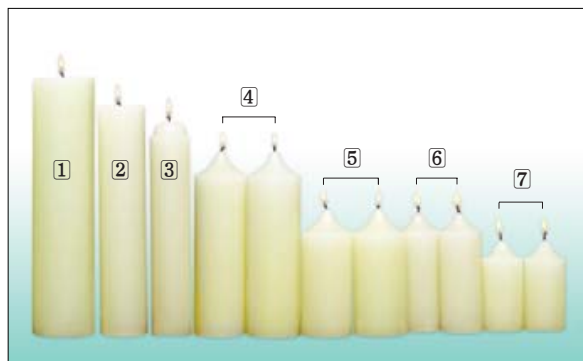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 ①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 ②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 ③ 밀납초원기둥 7.4φ × 30Cm
 - ④ 밀납초돈타레 5.6φ × 27Cm
 - ⑤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φ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 ⑥ 밀납초 1호 금강경 5.9φ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 ⑦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φ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 ⑧ 밀납초 3호 금강경 4.7φ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썩향 양초
 - ① 원기둥 7.4φCm × 29Cm
 - ② 돈타레 5.6φCm × 27Cm
 - ③ 밀 대 4.7φCm × 25Cm
 - ④ 1호 5.9φCm × 20Cm
 - ⑤ 2호 5.9φCm × 14Cm
 - ⑥ 3호 4.7φCm × 13Cm
 - ⑦ 4호 4.7φ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φ X 35cm
- 야광 용초 70φ X 35cm
- 원기둥 마패 7.4φ X 30cm
- 등신불 마패 4.7φ X 19.5cm

주요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 양초.net